

韓國民俗音樂學의 課題

韓 萬 榮

〈서울大 교수〉

《차 레》

머 리 말

- I. 한국민속음악학 方法論의 과제
- II. 研究器材의 開發
- III. Archive 設置

- IV. 연구영역의 확대
- V. Area Study
- VI. 자매예술과의 관계
- VII. 인접학문과의 관계

머 리 말

한국의 민속음악이라 함은 민요·판소리·산조·시나위·잡가·농악 외에도 크게 보아 巫樂·법패·탈춤이나 마당놀이 중목에 수반되는 음악을 포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악들은 과거에 일반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음악들이었다. 이점에서 서양의 Folk Music과 軌를 같이 한다.

그러나 서양의 Folk Music이 Art Music의 대칭으로서 아마추어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음악임에 비추어, 우리 민속음악은 土俗民謠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도의 音樂性을 필요로 하는 專門音樂人들의 음악이라는 점, 또 비록 불충분하나마 종류에 따라 약간의 文獻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Folk Music과 軌를 달리한다.

최근 민속악에 관한 많은 學問的 業積이 大學을 중심으로 발표되어 왔으나 그 내용은 주로 Field Work에 의하여 採集 採譜된 악보에 기하여 音階·旋法·장단·形式 등 Musical Grammar를 밝히는 작업이 주류를 이루어 온 감이 있다.

지금 세계 Ethnomusicology界는 괄목할 진전을 거듭하고 있어 과거 20세기 전반까지의 無文字圈의 音樂研究로부터 이제는 高度의 文化를 가진 민족의 음악연구로 차츰 그 범위를 확산시키고 있다. 더욱이 과거 聖域으로 간주되었던 유럽의 藝術音樂, 연구대상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던 大衆藝術 분야에까지 연구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볼때 한국의 민속음악학 (ethnomusicology)도 연구영역의 확대와 함께 方法論의 定立, Area Study의 확장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라 할수 있을 것이다.

I. 한국민속음악학 方法論의 과제

이제까지 민속음악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분량에 이르렀으나 그 내용은 주로 音階・旋法・장단・形式 등 分析可能한 樂典的 次元 즉 Musical Grammar를 밝히는 작업이 主였음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民俗音樂이 일반 서민들의 生活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만큼 그들의 文化的 배경을 도의시한 점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① 叙述(Description)

Ethnomusicology는 기본적으로 Field Work에 의존하는 만큼 現場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提報者(Informant)를 찾는 이야기로 부터 채집과정, 唱者(혹 연주자)들의 動作, 提報者들의 人的事項, 그 地域의 地理的, 生業的 特性, 분위기의 묘사 등 그리고 그것들의 意味에 관한 많은 叙述은 후일의 再構成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② 社會的 背景

모든 음악은 社會的 所產品이다. 그 음악이 불리운 社會의 特殊性을 서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취락의 氏族社會, 生業과의 관계, 직업의식이 투철한 專門藝人集團에 대한 서술, 그 자연환경 등도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수수밭 농사지역의 음악, 활엽수지대의 음악연구 등 지리적 분류로서 그 공통점을 모색해 보려는 연구도 있다.

社會的 배경에 대한 연구는 民俗學 내지 人類學과의 연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관한 民俗學・人類學・社會學・國文學的 연구업적들은 우리에게 좋은 文獻資料가 될 것이다.

③ 歷史的 背景

한국의 民俗樂, 나아가서는 東洋의 民俗樂은 西洋의 그것처럼 순수한 아마취들의 음악도 있지만 대부분이 職業的 專門藝人들에 의하여 불리어온만큼 歷史的 背景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流派나 傳承系譜, 沿革을 밝히는 것이 소망스럽다.

또 음악가 개인의 과거를 추적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그들은 연주가와 작곡가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속음악은 역사적으로 볼때 有能한 藝人을 만나게 되면 그 음악내용이 확대되거나 變質된다. 비록 그것이 발전적 방향이던 퇴영적 방향이던 간에, 최근에 전국민속경연대회가 생긴 후 많은 지방의 作業謠들이 國文學者나 民俗學者들에 의하여 一連의 모음곡처럼 30분이내의 음악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예컨대 南道들노래,

漁謠 등, 그리하여 사실내용이나 음악내용이 상당히 세련화되어 무대에 올려지곤 하는데, 이렇게 모음곡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되지 않고 있다.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편집되고 편곡되었는지를 기술해 두면 後世에 참고가 될 것이다.

④ 批評 Criticism

한국의 음악은 音樂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社會 共同體와 個人에 대한 意味와 價値를 중요시한다.

자장가는 음악구조상으로 볼때 베토벤의 교향곡의 구조에 못미치겠지만 어린애에게는 다시 없이 귀중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사랑과 平和와 깊은 수면으로 말미암은 건강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農謠나 漁謠같은 勞動謠는 生業과 관련되어 노동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活力素가 되니 價値가 있다.

그러나 勞動形態가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음악은 生活과 차츰 유리하게 되니 自生力이 있는 음악은 남게되고 그렇지 못한것은 사라져 간다.

「흥겹다」「멋이 있다」「씩씩하다」 등등의 美的用語는 그 文化的脈絡 속에서 (Within the Cultural Context)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기에,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美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음악을 통한 한국인의 美意識의 탐구와 그 歷史的 변천을 연구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⑤ 音樂史學 方法論과의 統一性

文獻과 樂譜가 남아있어 그것을 해독 분석하여 歷史的 변천과정을 살피는 音樂史學(Historical Musicology)의 方法論과, 현장조사(Field Work)를 통한 음악채집, 채보한 악보를 文化的 배경과 함께 연구하는 民俗音樂學(Systematic Musicology 또는 Ethnomusicology)의 方法論은 다른 것으로 혼히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가지 方法論을 綜合 統一시키려는 노력도 있어왔다. 音樂史學에 文化的 배경설명을 첨가시킨다면 民俗音樂學에 分析과 歷史的 배경설명을 더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II. 研究器材의 開發

민속악연구에는 몇가지 器材가 필요하다. Field Work때는 녹음기, camera(혹 VTR)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보시에는 再生用 녹음기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Reel Tape 녹음기가 많

아서 Speed를培로 떨어트려 재생시킬수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모두 cassett 녹음기를 사용 하기때문에 채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Tape의 Speed를 조절할 수 있는 녹음기의 개발 이 아쉽다. 日本에서 개발된 것으로는 약 1/4~1/3정도 Speed를 떨어트릴 수 있는게 나오 고 있으나 國產으로는 없다.

採譜를 위한 器材는 全世界的인 공통관심사에 속한다. 과거 UCLA의 Charles Seeger가 melograph를 발명했었으나 여러가지 취약점때문에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립극장의 김용국씨가 Computer를 이용한 기계를 개발중에 있어 기대해 본다. 이것 이 완성된다면 세계적 발명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樂器의 구조를 알수 있도록 立體사진을 찍을수 있는 특수 Camera를 미국의 William Malm이 고안했는데 樂器改良을 위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Archive 設置

민속음악학은 Tape, Record, Film, VTR 등이 원 자료인만큼 이것들과 함께 문헌자료까지를 포함한것을 保存·研究·開發·열람·出版시킬 수 있는 Archive의 설치야 말로 가장 화급을 요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Archive는 음악뿐 아니라 무용·마당놀이·탈춤· 전통演戲 新作·音樂·무용 등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各大學, 文化財管理局·文藝振興院·國立國樂院·精神文化研究院 기타 各個人研究者들에 까지도 散在되어 있는 資料들을 Archive가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原資料가 일반화되어 관심있는 사람들의 원자료 접근이 용이해 진다.

Archive의 사업중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연구업적의 出版과 함께 原資料의 Record, Tape, Film, VTR등의 出盤이다. 현재 국악 Record나 Tape이 상업 레코드社를 통하여 종종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상업이 목적이어서 희귀자료들이나 팔리지 않을 것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日本만 하더라도 귀하지만 상업성이 없는 음악들은 政府가 Record 大賞制를 실시하여 賞金과 함께 減稅를 해줌으로서 많은 희귀자료들이 Record로 만들어졌다. 이런 제도가 없는 우리로서는 제도를 만들던가 아니면 Archive에서 만드는것이 바람직 하다.

또 현재 國立영화제작소에서 만들고 있는 문화영화도 음악·무용·예능에 관한 것은 Archive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것이 훨씬 바람직 할것이다.

현재 政府가 추진하고있는 것으로는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에 Archive設置를 계획하

고 있다.

IV. 연구영역의 확대

현재까지의 한국민속음악학은 주로 藝人들의 음악인 판소리·산조·시나위·민요·농악·잡가 외에 범패나 巫樂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서양의 Ethnomusicologist들이 그랬던것 처럼 한국민속음악학계도 그 연구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① 民俗藝能

탈춤·창극·민속놀이·민속춤 등의 민속예능은 모두가 음악이 基底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민속예능뿐 아니라 한국음악 자체가 본질적으로 樂歌舞一體의 綜合藝術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종합예술에서 음악부분만을 따로 떼어낸다는것 자체가 無理다. 그것은 마치 植物學자가 연구대상에서 植物의 風土·기후·土質등을 제외시키고 나무만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그동안 한국민속음악학은 音樂語法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民俗藝能분야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었다. 따라서 탈춤이나 민속놀이는 국문학·민속학에서, 창극은 국문학·연극학계에서 주로 다루어 왔다. 민속예능에 관한 연구는 우리 민속음악학 분야의 새로운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② 기타 음악

民俗藝能뿐 아니라 新音樂 流行音樂 등도 한국음악학의 대상이 될수 있다. 최근 서양에서는 觀光과 音樂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空港, 비행기, 버스정류장 버스안 관광지 등에서 음악의 效能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世界的 民族音樂會議의 議題로 「관광과 음악」을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流行音樂을 진지하게 학문적 대상으로 삼는 일은 우리나라의 경우 별로 없었다. 流行歌야 말로 그 時代의 文化的 한 단면을 잘 들어내고 있다고 볼때 여기에 대한 연구도 Ethnomusicology의 좋은 연구대상이 될수 있다.

③ 民俗樂器

傳統樂器에 대한 연구는 과거 李惠求 張師勳 두분에 의하여 연구된 일이 있으나 民俗樂器에 대한 연구는 全無한 형편이다. 英國의 Laurence Picken의 호두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버들피리, 쌍피리, 제주도의 물허벅, 함경도의 바가지 툽에 등등 외에도 전통악기의 민

俗의 채용에 따른 變形樂器 등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다.

V. Area Study

우리는 그동안 多難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도무지 他國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틈도, 필요도 없었던게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추후에 마지않는 西洋文化에 대한 동경과 함께 音樂研究나 教育도 완전히 西歐音樂 一邊到였다.

歐美的 Ethnomusicology는 「world」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해오고 있다. 그리하여 전세계 어느나라 어느민족의 음악이던 모두가 그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일찍 西歐文化에 눈을 뜬 日本만 하더라도 東洋이라는 개념을 그들의 연구대상 학문에 즐겨 도입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東洋音樂學會 등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할것 같다.

국제정세의 多邊化와 함께 우리의 관심도 歐美와 한국에 국한되었던 시야를 차츰 아시아 여러나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될 국면에 처하고 있는 입장이다. 音樂도 차츰 안목을 넓혀 日本, 中國, 印度,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제국과 아랍권의 음악연구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들 음악과 한국의 음악의 比較研究 등도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

VI. 자매예술과의 관계

민속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한국음악은 원래 일종의 綜合藝術이었다. 따라서 무용·의상·의물·연출 등이 「樂」이라는 개념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나친 分業的 研究에 치중하여 Inter-disciplinary가 없었던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것이다. 學問的 研究方法의 交流나 美學的 배경, 용어의 배경 등 상당히 많은 지식을 자매예술이 제공해 줄것이라 믿는다.

西洋音樂도 Style에 대한 용어는 文學·美術·건축 등에서 채용한 것이 많다. 따라서 무용·文學·詩·연극·미술·의상·건축·공예 등 자매예술과의 연계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시야를 음악학계에 제공해 주리라 믿는다.

VII. 인접학문과의 관계

민속음악에 관한 관심은 비록 음악학 뿐 아니라 民俗學, 人類學, 社會學, 國文學, 美學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 업적도 상당하다. 이러한 인접학문 분야의 方法論과 연구업적의 교환 내지는 共同研究는 피차 相互補完的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이런 점에서 學問間的 Inter-disciplinary는 매우 중요하다.

文化란 기계의 부속품처럼 어떤 일면이 아니라 人間生活의 총체적 개념이며 民俗音樂學은 그 生活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韓國 民俗音樂學의 課題」에 대한 질의

윤 덕 경

〈창 무 회〉

한국민속음악학의 오늘의 과제와 방법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 논술에서 새로운 시도의 필요와 제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의자 자신이 한국민속음악에 대한 식견은 부족하나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무용가로서 한국민속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종 흥미있게 경청했습니다. 특히 한국민속음악연구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고 음악과 무용이 원래 一體가 되어 함께 이루어졌었던 사실에 반하여 요즈음은 음악은 음악대로 무용은 무용대로 연구되어 왔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근래의 무용은 무용이 갖는 공연성과 종합예술성때문에 안무가와 음악가, 연출가등 주변에 관련된 많은 인적자원과 공동으로 작품에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의 입장에서든 음악가에 의해서 주도되던, 무용가에 의해서 주도되던, 함께 연구하고 창작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민속음악학이 음악과 무용을 일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의 여러 방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일체적으로 파악 연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한계점이라던가 문제점 연구의 요소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장에서는 서양문화에 대한 동경과 함께 음악의 연구가 서구음악의 일변도였음을 지적하였고, 국제정세의 다변화와 함께 우리의 관심도 구미와 한국에 국한되었던 시야를 주변 아시아 여러나라로 확대시켜야 하며 이들 나라와 한국의 음악이 비교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의 문화는 주변의 문화에 상호영향을 주고 받게 되며 주변문화에 적당히 대응 도전하고 적당히 적응하면서 개성을 갖고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감하면 주변지역의 민속음악에서 공통성을 찾고 특성을 찾아 상호연관성을 밝히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인류학적 견지에서 민속음악의 발생 배경에서 갖는 제사적 성격이라든지 오락, 주술등과 가락·표현양식이라든가, 미학적 견지에서 음악활동의 의도나 미적 경험·효과등에서 보면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양과 서양 또는 아프리카등을 포함한 범세계적인 입장에서 민속음악의 공통점과 특징적인 점들이 검토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방향과 과제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머리말에서 서양의 민속음악과 한국의 민속음악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지적하시면서 민속음악이 일반 서민들을 위한, 서민에 의한 음악들이라는 점에서 軌를 같이한다고 지적하셨고 그러면서도 우리 민속음악은 토속민요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도의 음악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음악인들의 음악이라는 점에서 서양의 민속음악과 달리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한국민속음악이 전문예인집단에 의한 고도의 음악성을 강조하더라도 민중생활에 뿌리를 갖고 대중들에 의하여 육성되고 전개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면 전문예인집단에 의한 고도의 음악성도 민중의 생활과 민중의 예술로서의 관계에서 민중이라는 입장에서 연구의 방법이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 방향의 시야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